

朝鮮獨立運動
百年回顧

2025 예를 6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兩湖倡義領袖全琫準謹書于

湖西巡相閣上覆載之間令細把補物之事

其食古弊者不可以類論之先君固有深思生

致外歸內清容身於人下一勞永逸日寇之

擇善勤矣逼我

君父授我家務寧可說半在昔壬辰之變東流亡

樊閻廟序召親朋參席臣民之共憤而今

古未忘之悔也在於平郊匹夫昧音尚樂祀不廢

丙戌舊世樞密院本使於平郊小吏相目今朝廷

大臣各皆苟全之以土增

君父下國眷民連脣於東東以致死於南矣每朝

親六欲言

先王赤子誠何啻割烹向者今士之所為固
특집1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및 퍼센트

전시

전봉준 순국 130주년 기념 특별전

先農奉天遺寶之風水脈 閨下特旨

유족 인터뷰

이길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병춘의 손자

뉴스 초점

제1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블로그 기자단 운영

제1기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 '녹두꽃 집강소'

특집2

정탄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취임 인터뷰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 기념〉

동도창의소 고시(東徒倡義所 告示)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동도창의소 고시(東徒倡義所 告示)」는 1894년 11월 12일,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반 백성들에게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함께 싸울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항일 의지를 굳건히 하고, 광범위한 세력의 동참을 유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채널



홈페이지



웹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녹두꽃

표지 설명



60호(2025년 여름호) 표지는 전봉준 순국 130주년을 맞아, 「전봉준 상서」(국사편찬위원회 제공)를 배경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통권 60호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화** 063 530 9413
발행일 2025년 7월 1일 **팩스** 063 538 2893
이메일 1894@1894.or.kr **제작** (주) 고려디자인
홈페이지 www.1894.or.kr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소식지 「녹두꽃」 구독 신청 063-530-9413

02 기념공원의 여름

04 특집1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황토현에서 되살아난 녹두꽃의 외침

08 전시

전봉준 순국 130주년 기념 특별전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

12 유족 인터뷰

이길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병춘의 손자
혁명의 길에서 조국의 길로 – 풍암(豐菴) 이병춘 선생의 발자취

20 뉴스초점

제1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블로그 기자단 운영
제1기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 '녹두꽃 집강소'

28 재단포커스

김양식 신임 소장 취임,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도약 다짐
제23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녹두대상 상금 전액 기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제5기 8차 이사회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4호 발간

31 특집2

정단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취임 인터뷰
유족과 국민이 함께 기억해야 할 동학농민혁명

36 지역포커스

녹두의 봄은 다시 찾아온다
제20회 보은동학제
순국 제130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정읍)
순국 제130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서울)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식
2025 제4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우금티전적에서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함평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 2주년 기념 초청 강연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식 A to Z

44 녹두꽃 다시 피다

50 독자 참여 이벤트

02  기념공원의 여름



촬영 송현

흔들리는 그늘 아래,
여름이 머물다



04 특집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황토현에서 되살아난 녹두꽃의 외침

2025년 5월 11일, 황토현에서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은 민주, 평등, 자주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자리해,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주권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그 정신을 계승 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통지서 전달, 문화 공연, 무장포 고문 낭독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
오늘에 되새기다**

2025년 5월 11일,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거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민주·평등·자주**라는 가치를 오늘의 사회에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기념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하였으며, 유족과 시민, 동학농민혁명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나눴다. 특히, 올해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참석해 행사의 상징성과 위상을 더욱 높였다.



국민주권의 뿌리를 새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131년 전 황토현의 승리는 단지 한 차례 전투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었다”라며 “동학농민혁명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분명히 밝혀준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국회도 그 계승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채로운 공연과 낭독, 역사의 숨결을 전하다

기념식은 KBS 최원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내빈 헌화와 묵념을 시작으로 ▲'녹두꽃 시민합창단' 공연 ▲'나빌레라 예술단'의 무대 공연 ▲유족에 대한 통지서 전달식 ▲국악인 김주리의 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졌다.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국악인 김주리



무장포고문

무장포고문낭독



이날 행사에서는 1894년 무장에서 발표된 '무장포고문'이 낭독되어, 농민군의 외침과 그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가치와 원칙을 되묻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또한,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가 운영한 체험 부스는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맥락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인사 한자리에… 역사의 의미 함께 되새겨

이날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이원택·윤준병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정을호·백승아 의원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김혜경 여사는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민주 정신을 다시금 새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과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백성이 주체가 되어 불의에 맞섰던 뜻깊은 역사”라며 “이 정신이 지금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 속에 살아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131년 전 황토현 들녘에 피어난 녹두꽃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날 기념식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행사를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되묻는 시간이 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및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단체장 등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박인준 천도교 교령,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우원식 국회의장,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김혜경 여사, 윤준병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院長東農布吉文
人本及也昌育為以人倫也居官文子人倫之大廟
仁直文志才李然良家家能能無之惟全
上多忘慶補明耶唐體更正直眞續舊傳
唐之文累之治可謂指日而希今之為後不思顧
補任養聰明阿食誦客恩德士馬之缺言正直
之區復內魚頤同之才許多處人官人公也口貫頭
人無所生者其一矣當改直律時得
無是文之倫上之少遠失而爲遺失彼失而
不休國爲滅亡今之世嘗甚於昔失自公私
才者失今不爲國家三元始古財肥已固家之財
之門視若空寶之跡應趕樂易之市耕多實耕
危路同心信北徇謀今舉義捨以報國安民為
納黑庫反竟無國有情累後不至罔及耕種
無底里信八路同公萬民安寧之金唐者
乃前民寡佳國也民爲那半南割圓墳不空也
天之方外被綱第誰被獨夢主方狹窮使甚
我方徒難革野蓮及金忠士服君永不可空難固
危路同心信北徇謀今舉義捨以報國安民為
之鑿今日舉義先策雖為難取初力忍勤各無
愧聖心于萬榮盡
懷舊古早扶安完營公州等地處屢次報
里死焉二百四五十人日是形十日坐遺報
尚末可知也

全 琫 準

08 ◎ 전시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

2025. 5. 11일 ~ 8. 10일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봉준 순국 130주년 기념 특별전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의 순국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전시는 2025년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리며, 전봉준 장군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그의 출생과 성장

전봉준^{全琫準}은 1855년 12월 3일(음력), 고창현 덕정면 죽왕리 당촌에서 태어났다. 이 이름은 천안현씨 20세 호가 모여 있는 집성촌이었다. 그의 집안은 본래 양반 신분이었으나, 대대로 고서에 금제하기나 관복에 오른 인물이 있었던 데에 새별이 흐르며 일자 물려하였다. 어버지 전봉학은 글을 아는 선생으로 고부 황관의 정약용^{鄭若庸} 밭앞으로 마을에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은 계속되었고, 전봉준은 가족과 함께 전주·구미, 대안·지금실, 고부·조소리 등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그는 유랑 생활 속에서 굴주한 어려움과 죄 업에 걸리기는 백성들을 지켜보며, 노후의 침울한 현실을 같이 세워라였다. 이는 낭만·백성임을 복한 시적으로 성향하는 바람이 아팠다.

전봉준 순국 130주년 기념 특별전

기간

2025. 5. 11. ~ 2025. 8. 10.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시 기획

이은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이번 특별전은 총 4부로 구성됩니다. 1부 '그의 출생과 성장'에서는 전봉준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2부 '그의 방'에서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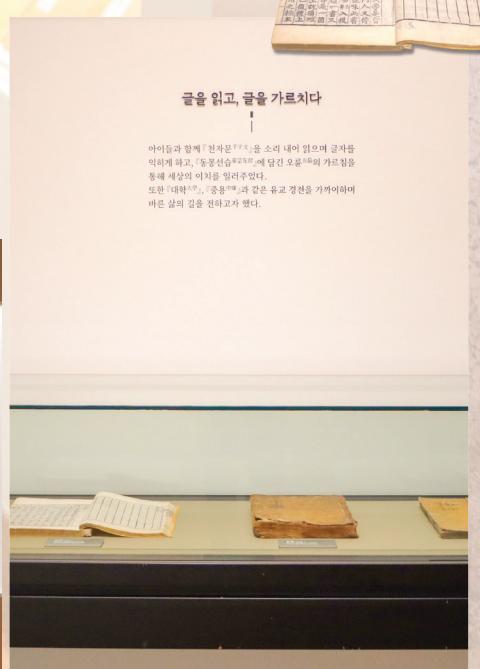
01 '그의 출생과 성장'

02 '그의 방'

130주년

글을 읽고, 글을 가르치다

아이들과 함께 「천자문^{千字文}」을 소리 내어 읽으며 글자를 익히게 하고, 「동물신습^{動物信習}」에 달긴 오윤^{五倫}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일러주었다.
또한 「대학^{大學}」、「중庸^{中庸}」과 같은 윤교 경전을 가까이 하며
마흔 살의 길을 전하고자 했다.





03

‘그가 꿈꾼 세상, 그와 함께한 사람들’



▲ 순창소모관 칩보



▲ 수록

04
‘그가 돌아온다’



3부 ‘그가 꿈꾼 세상,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함께한 사람들과 그들이 추구한 이상과 결말을 다루었습니다. 4부 ‘그가 돌아온다’로 전봉준의 정신이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조명합니다.



◀ 결의하는 농민군

전시에서는 전봉준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학·예술작품이 함께 소개됩니다. 특히, 국경오 작가의 신작 <혁명가의 초상>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봉준 장군의 굳건한 의지와 신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신동엽의 장편 서사시 「금강」, 송기숙의 소설『녹두장군』등 대표 문학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그의 정신을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학·예술 작품에서는 그의 의지와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 사회에 용기가 있는 또 다른 전봉준이다시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가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131년 전 동학농민군이 꿈꾸던 세상,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아마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고,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길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병춘의 손자

날짜 2025. 5. 27.(화)

장소 전주 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

참여자 이병춘(1864. 2. 2.~1933. 6. 29.)

유족 이길호



이병춘 선생은 1887년 동학에 입도한 후, 임실·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포덕 활동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삼례집회, 보은 교조신원운동, 진산 전투, 2차 기포 등에 적극 나섰으며, 이후 3·1운동과 독립자금 모금에도 뜻을 함께 하였다.

손자인 이길호 선생은 이러한 조부의 정신을 기려 다수 유물을 기념재단에 기탁하고, 유족 활동과 천도교 전파에 힘쓰고 있다.



보국안민

혁명의 길에서 조국의 길로 - 풍암(灋菴) 이병춘 선생의 발자취

● 먼저, ‘녹두꽃’ 독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신 풍암(灋菴) 이병춘의 손자, 근암(根菴) 이길호입니다. 저의 선친께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이시며, 저는 현재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대의원 겸 전주·완주 유족회 이사,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 천도교 전주교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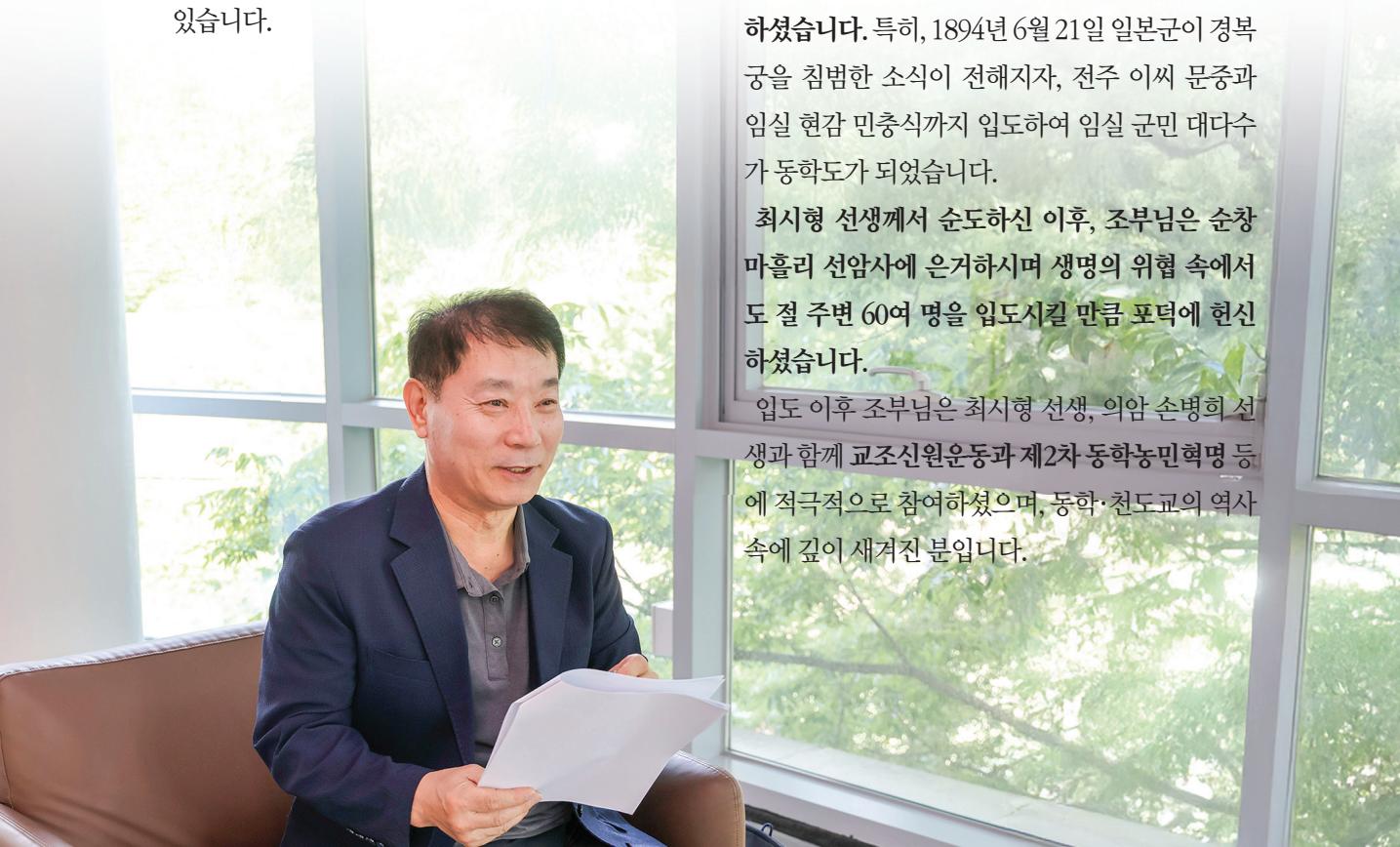
● 이병춘 선생님은 주로 임실, 전주 등 전북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1880년대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동학의 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1887년 이병춘 선생님이 동학에 입도한 이후로 점차 동학의 교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884년 6월, 해월(海月) 최시형 선생께서 익산 사자암에 은거하시며 여산 사람 박치경의 주선으로 수도와 포덕에 힘쓰셨습니다. 이후 동학은 전주 등 전라도 일대로 확산되었습니다.

24세의 나이로 입도하신 조부님은 수개월 만에 20여 읍에서 수천 명을 포덕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주 이씨 문중과 임실 현감 민충식까지 입도하여 임실 군민 대다수가 동학도가 되었습니다.

최시형 선생께서 순도하신 이후, 조부님은 순창 마흘리 선암사에 은거하시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절 주변 60여 명을 입도시킬 만큼 포덕에 헌신 하셨습니다.

입도 이후 조부님은 최시형 선생, 의암 손병희 선생과 함께 교조신원운동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며, 동학·천도교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진 분입니다.



❶ 이병춘 선생님의 동학농민혁명 활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892년 삼례집회를 시작으로 백 산대회 참석, 집강소 설치, 2차 기포 등 많은 활약이 있었지요.

1864년 2월, 조부님은 전북 임실군 상동면 효촌에서 태어나셨고, 스물네 살이던 1887년 말경 동학에 입도하셨습니다. 이후 1892년 삼례집회, 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 교조신원운동, 1894년 진산 전투 시의 피체, 집강소 활동, 2차 기포 등 동학농민혁명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임실을 대표하는 접주로서 활약하셨습니다. 조부님의 첫 기포는 3월 25일경 임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4월 2일에는 『호남의비록(湖南義非錄)』을 저술하시고, 죄성명 등과 동행하여 진산군에 갔다가 민포군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1894년 9월에는 함열의 김방서, 오지영, 익산의 오경도, 고제정 등 각 지역 접주들과 2차 기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전봉준 등과 함께 북상하여 공주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전 후 흩어졌다고 전해집니다.

2차 기포 시기, 관에서 최시형 선생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조부님께서는 10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최시형 선생을 직접 수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최시형 선생을 모실 정도로, 조부님은 동학 교단 내에서 깊은 신뢰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조부님은 1895년 무장 접주를 맡으셨고, 1900년에는 팔도 대접주에

임명되었습니다. 교단 기록에는 갑오년 이후에도 조부님의 활동이 꾸준히 등장합니다.

이후 천도교에서 천도교 전주 대교구장, 성도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활동하셨고, 1919년에는 서울과 전주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종법사장, 법정 등 주로 천도교의 고위 직책을 역임하시며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1933년 6월에 환원하셨습니다. 장례는 천도교 중앙 교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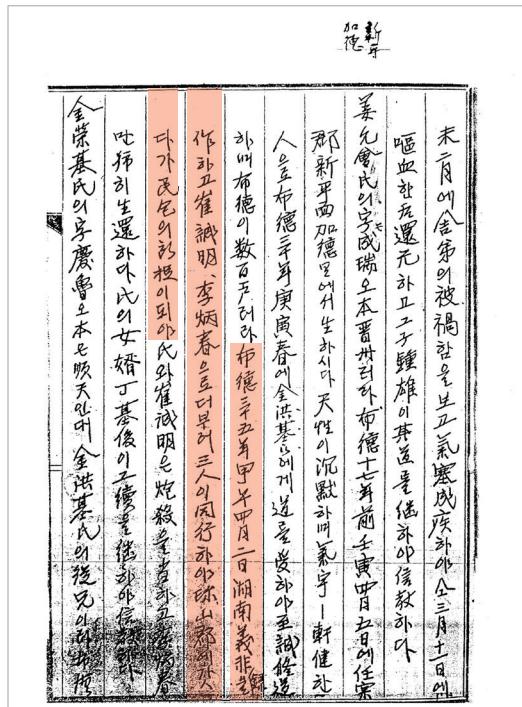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병춘

민포군에게 체포되었을 당시의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남원 지역과 연원이 있는 동학 순교자를 대상으로 작성한『순교역』에 따르면, 1894년 4월 진산군에서 민포군에게 잡혔다가 겨우 생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의 종손 최성명, 강일희, 그리고 우리 조부님 세 분이 최시형 선생을 뵈러 가던 중, 충남 진산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동학도인을 토벌하려던 금산, 용담군에게 체포·포박되어 행장을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 중『입의록』2권이 발각되자, “이것들은 동학 괴수가 틀림없다”라며 붙들어 무수히 때리고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시형 선생의 거처나 다른 동학인들에 대해 전혀 실토히 않자, “이놈들은 진산을 토벌한 후 돌아가는 길에 죽이겠다”하고 진산으로 향했습니다.

머지않아 포성이 진동하였고, 동학농민군 6명이 포로로 잡혀 와, 어느덧 포로는 총 9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산을 토벌한 후 돌아와 우리 조부님을 포함한 9명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행히 총에 불이 붙지 않아 결국 금산으로 끌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는 이미 붙잡혀 있던 4명이 있어, 포로는 총 1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놈들은 최시형 선생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조부님을 연이어 문초하였습니다. 하도 매질을 당해 다리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조부님은 계속해서 “모른다”고 일축하는 것으로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쓰러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놈들은 조부님을 강가에 버렸습니다. 운 좋게도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견하여 구해주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 순교역

이처럼 이병춘 선생님께서는 목숨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키며 최시형 선생과 교단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신념과 실천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힘쓰셨고, 마침내 3·1운동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조부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전라북도 총책임자로 상경하여, 파고다공원(탑골공원)의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공훈록』을 비롯한『동학천도교 인명사전』에도 “이병춘은 탑골공원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부님께서 서울 만세운동의 독립자금 모금 활동으로 체포되어 심문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부님은 고산교구장 김태현과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오지영과 함께 전국의 교인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담양군 교구장 황정욱이 조부님에게 독립운동자금 명목으로 300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병춘 소행 조서에 따르면, 조부님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일제의 심문 과정에서도, “김태현과 만난 적이 없으며, 독립운동자금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셨습니다. 또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냐고 묻는 질문에도 “우리들이 그런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도저히 될 일이 아니므로 그런 희망은 없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심문을 회피하고 교단과 동지를 보호하려는 조부님의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됩니다.

출옥 후에도 조부님은 상하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송금하다가 발각되어, 다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고 2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전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 이병춘 국가유공자증

Q 이병춘 선생님께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 동학(천도교)의 정신을 실천하며 가족과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선생님의 활동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부님의 활동은 주변에 큰 영향을 주었고,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부님의 동생 이병용 님은 임실에서 기포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나, 조부님의 행적을 추적하던 민포군에 의해 1894년 4월경 28세의 나이로 타살되었습니다.

제 조모의 부친 박기준 님도 동학 접주로 활동하셨으며, 그 아들인 박성근 님은 동학농민혁명과 독립 운동에 참여하였고, 천도교 도사·종법사·전주교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성근 님의 아들 박찬문 님 또한 천도교 전주교구장을 맡으며, 가산을 독립 자금에 투입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조부님은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에 함께한 전주 지역 접주 양암(陽菴) 최재봉 님과 사돈 관계였습니다. 최재봉 접주의 딸님이 조부님의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부님의 친인척과 주변 인물 대부분이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동학·천도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는 조부님의 활동이 단지 개인적 실천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역 공동체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줍니다.

Q 이병춘 선생님의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분들 대다수가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동학(천도교)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가계의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고, 천도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큰 인물이었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회사에 다니며 생업에 전념하던 시기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족 신청이나 기념재단 활동 등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손병희 선생과 조부님 사이에 오간 서찰 내용을 확인하고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념재단에서는 조부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었고, 2004년 직권조사에 따라 조부님께서 공식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 되셨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권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유족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식으로 유족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은 제게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부님의 독립운동 공훈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그해 저는 천도교 전주교구를 찾아가 입교하였습니다. 같은 해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조부님의 활동이 학문적으로 조명되었고, 저도 유족으로서 자리에 함께하며 깊은 자부심과 감동을 느낀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이 시기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유족 신청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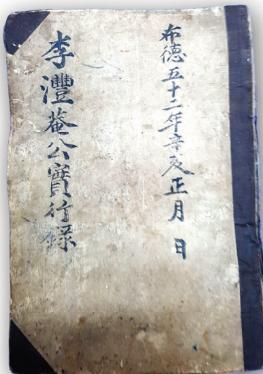
Q 이러한 과정이 계기가 되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이병춘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서책과 유물을 기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단에 기탁해 주신 자료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탁한 자료는 총 60여 점으로, 그 가치의 유무를 떠나 조부님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풍암공실행록(李豐菴公實行錄)』, 천도교 창건사, 봉승심법(법문), 영결식순, 천도교 및 각계 인사의 부의, 천도교 기관지 환원기사(『월보』, 『당성』), 서적, 조부님의 글씨 ‘풍암도호(豐菴道號)’, 그림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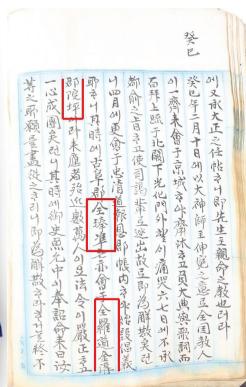
▼3·1운동 기념 100주년 학술대회



특히,『이풍암공실행록』은 조부님인 풍암 이병춘 선생의 활동과 생애를 담은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책은 포덕 52년(1911년)에 작업을 시작해 포덕 56년(1915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부님이 직접 구술한 내용을 문하생 김재홍이 정리해 국한문 혼용체로 기록한 총 112면 분량의 자료입니다. 1864년 조부님의 출생부터 1915년경까지의 주요 행적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 이풍암공실행록 표지

▲ 이풍암공실행록
- 전봉준 원평집회 주도 관련 내용

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박사의 해제에 따르면,『이풍암공실행록』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불과 17년 만에 혁명 참여 당사자인 이병춘 선생의 구술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며, 전봉준 접주가 이끈 농민군과 최시형 선생이 이끄는 교단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화 연구가 기대되는 자료라고 합니다.

Q 말씀하신 자료 중『이풍암공실행록』에는 1893년 원평집회 당시 전봉준의 행적, 동학 입도 방법, 접주 임명 절차, 1894년 최시형의 이동 경로 및 활동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큰 자료를 기념재단에 기탁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유족 신청 당시 기념재단에서 자료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부님의 자료를 천도교에 기증할 생각이 있었기에 기념재단에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후일담이지만, 만약 그 때 이 자료를 재단에서 확인했다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다른 자료와 함께 추진해 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자인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료는 작성된 지 115년이 넘은 오래된 문서로,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훼손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보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중, 자료의 가치를 알아보고 보존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손병희 선생과 조부님이 주고받은 간찰(簡札) 등 일부 관련 유물이 이미 기념재단에 소장되어 있었기에, 분산보다는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박사에게 자료를 보여드리고 의견을 들은 후, 기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기념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이 동학(천도교)과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기타 역사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으로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나 관련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념재단과 유족회, 기념사업회, 정부 및 지자체 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서로 존중하고 공유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을 함께 계승하고 선양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존중, 평등 세상, 대동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은, 헌법의 이념적 토대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의 위상 격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위상과 희생 규모,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정부 대표 역시 장관급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넷째,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문화적 유산과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세계화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전주와 정읍에서 추진 중인 세계혁명예술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처럼,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적인 혁명으로 알리고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금껏 묻혀 있던 유족들이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등록된 유족 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전북도와 전주·완주 등의 자자체 협의를 통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교육의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초·중·고·대학교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서의 역사 교육 정착과 함께, 각종 시험에서도 역사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식지 유족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대답자: 기념재단 기획운영부 임현진)



◀ 이병춘 선생 묘소(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시민이 기록하고 세상이 공감하는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제1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블로그 기자단 운영

2025년 4월 16일 오전 10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기 블로그 기자단' 출범과 함께 새로운 홍보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블로그 기자단은 단순한 보도 기능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민주', '평등', '인권'의 정신을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블로그 기자단 출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4월 16일, 재단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홍보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 날 발대식은 기자단을 환영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재단의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사업 안내, 기자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 제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어 알찬 소통의 장이 되었다.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전하는 역사와 가치

이번 블로그 기자단 운영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홍보 환경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가치를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존의 정형화된 콘텐츠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특히, 블로그 기자단은 단순한 보도 기능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민주', '평등', '인권'의 정신을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7인의 시민 기자단

블로그 기자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재단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 모집되었으며, SNS 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서울, 광주, 세종, 대구, 나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참여 비율이 높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해석과 젊은 감각이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기자단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하는 ‘현장형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8개월간의 여정, 감각적 콘텐츠로 혁명의 정신을 전하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기념사업단체의 전시, 교육, 학술대회,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취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는 콘텐츠를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며, 개인 SNS와 재단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널리 확산시킬 예

정이다. 단순한 행사 소개를 넘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참가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기자단 각자의 감각적이고 참신한 해석을 담은 콘텐츠는 기존 홍보 물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재단은 기자단에게 일정 활동비를 지원하며, 활동 종료 시 우수 기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이는 기자단의 동기 부여는 물론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을 넘어 공감으로, 시민이 만드는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이번 블로그 기자단 활동은 시민 참여 기반의 홍보 사업이 갖는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념재단은 기자단의 콘텐츠가 단순히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로 확산되길 바라고 있다.



◀재단 블로그
바로가기



그날의 함성을 오늘의 언어로

제1기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 '녹두꽃 집강소'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 '녹두꽃 집강소'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교육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사업으로, 역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전문 해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 4월 2일 교육 - 부안 백산성



1개월간 이어진 이론과 현장의 만남

이번 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은 총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교육생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부터 주요 인물과 사건, 지역별 혁명 전개 양상까지 폭넓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 과정은 단순한 강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답사와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해설사로서의 실질적인 해설 능력과 현장 대응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의에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권위자인 신순철, 조재곤, 배항섭, 정성미 교수 등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이론 교육을 제공하였고, 문병학 전 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과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등 30년 이상 관련 기념사업에 몸담아온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 답사를 이끌며 실제 해설 노하우를 전달하였다. 현장 교육은 정읍 황토현을 중심으로 고부봉기지, 무장기포지 등 주요 유적지를 포함한 답사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이론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었다.



▲ 3월 31일 이론 교육

교육생들의 뜨거운 반응 “자긍심과 책임감을 함께 배웠다”

해설사 양성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 교육생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 지식보다 훨씬 깊고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지역사나 민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민주주의와 민중 의식의 출발점임을 깨달았다”며 “지역 주민으로서도 자긍심이 생겼고, 앞으로 해설사로서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해설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살아 있는 역사의 매개자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며 특히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4월 9일 교육 - 김제, 원평집강소

첫 인증서 수여, 역사 해설의 새 지평을 열다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나리오 작성과 시연 평가를 포함한 실전 응용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모두 통과해야만 정식 수료가 가능했다. 총 24명의 이수생 가운데 이 과정을 통과한 14명이 수료 생으로 선정되어, 전문 해설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수료생들에게는 지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 가기념일’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인증서’가 수여되었다. 이는 해당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생들에게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첫 사례로, 동학농민혁명 해설의 질적 도약을 예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기념재단은 이번 교육 과정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인 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통해 해설사의 전문성과 최신 역사적 이해를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탐방객을 위한 맞춤형 해설 프로그램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인증서 수여식



▲ 4월 15일 교육 - 삼례봉기 역사광장

재단의 비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역사 해설의 거점으로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해설사들이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해설사들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교육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단은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해설사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전남, 충남, 경남 등 인접 지역에서도 동학농민혁명 해설사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에 배출된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들은 지역의 역사 자산을 지키고 확산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앞으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번 첫걸음이 전국적인 역사 해설 네트워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녹두꽃 집강소

제1기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

구분		주제 및 내용			
		교육	일자	강의명	강사명
1차	지식 교육	이론	3.31.(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	신순철
				동아시아의 정세와 청일전쟁	조재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배향섭
			4.1.(화)	19세기 호남지역	박정민
				19세기 조선 사회	정성미
		현장	4.1.(화)	정읍지역 답사 1)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2) 사발통문 작성지 3) 동학혁명모의탑 4) 전봉준유적 5) 황토현전적	문병학
				고창, 부안지역 답사 1) 전봉준 생가터 2) 무장읍성, 무장기포지 3) 선운사 마애불 4) 부안 동학농민혁명군 백산대회지	문병학
				김제, 전주지역 답사 1) 원평집강소 2) 전라감영 3) 전주동학농민혁명녹두관 4) 완산칠봉 전주입성비	문병학
			4.10.(목)	남원지역 답사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요천 표지석 2) 광한루원 3) 교룡산성, 선국사, 은적암터	문병학
				완주지역 답사 1) 삼례봉기 역사광장 2) 대둔산 3) 충남 금산군 진산 방축점	이병규
5차	안전교육	이론	4.19.(토)	안전교육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공감교육			스피치교육	박정순
6차	실전응용	평가	4.29.(화)	시연 평가	-
수여식			5.11.(일)	인증서 수여식	-

역사의 숨결을 전하다 : 동학농민혁명 해설사 이야기

제1기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 참여 소감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로의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최재훈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양성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으며, 일련의 교육과 시연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관심도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을 거치며 안타까운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고, 아픈 역사를 배워 전하는 일이 제게도 의미가 있다고 느껴 그때부터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국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민 의식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할 때 평화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식이며, 이것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131년 이 지난 지금도 동학농민혁명이 주는 가르침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인상 깊었던 화법 강의

교육 과정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론과 현장 방문이 조화를 이루는 명강의의 연속이었습니다. 덕분에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론 시간이 좀 더 많고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최재훈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졌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강의가 훌륭했지만, 특히 마지막 과정인 화법 교육이 인상 깊었습니다. 언어 예절, 바른 자세, 명확한 발성, 학생들과의 소통 방법, 적절한 언어 선택 등 전문 해설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으며 마치 지식에 ‘갑옷’을 입혀주는 듯한 강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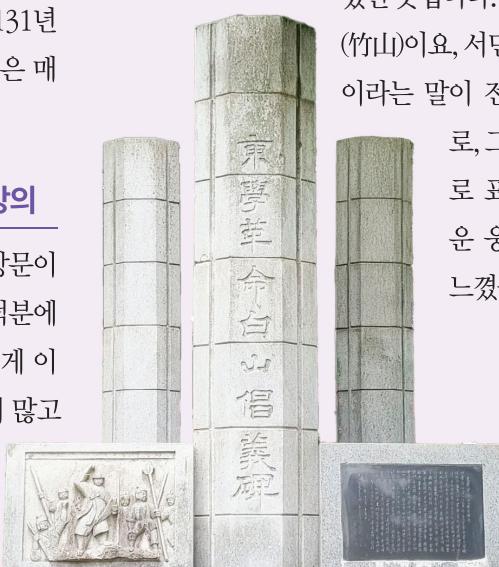
현장에서 만난 동학농민혁명의 숨결

이론 못지않게 현장 교육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세 곳이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백산성, 민중의 결집

첫 번째 장소는 부안 백산성입니다. 해발 47미터에 불과하지만, 사방이 탁 트인 전략적 요충지로, 약 8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흰옷에 죽창을 들고 모

였던 곳입니다. “앉으면 죽산(竹山)이요, 서면 백산(白山)”이라는 말이 전해지는 곳으로, 그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웅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안 백산성 동학혁명백산창의비 ▶

원평집강소, 민중 자치의 첫걸음

두 번째 장소는 원평집강소입니다. ‘동록개’라는 백정이 신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자기 집을 헌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많은 민초의 간절한 염원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원평집강소는 1894년 여름, 정부와 동학농민군 사이에 맺어진 전주화약과 이에 따른 관민상화 원칙에 따라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한 민정자치기관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배 대상이던 기층 농민들이 직접 통치권력을 행사한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곳이 그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녹두관, 이름 모를 용사의 늦은 귀향

세 번째 장소는 완산칠봉의 녹두관입니다. 무명의 동학농민군을 기리는 추모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100여 년 만인 1996년 5월 봉환되었고, 2018년 5월 완산 전투지에 조성된 녹두관에 안치되었습니다. DNA 추적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후손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사망한 지 120여 년 만에 무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한 무명용사를 기리는 그 노력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잔함과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준비된 노력과 뜻깊은 경험, 시연 평가

시연 평가 과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연 평가를 위해 발표하고 싶은 주제와 장소를 선정해 시연 발표 자료를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어 저는 제가 사는 익산과 가까운 삼례봉기를 주제 삼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우리말 시연자료와 영어 시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평가 당일에는 추첨을 통해 한 곳 더 특정 장소에 대한 해설을 즉석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운 좋게도 미리 관심을 두었던 장소를 선택해 비교적 여유 있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곳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 입장했고 심사 위원이 권고한 주제와 시작 알림에 따라 저는 먼저 영어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연이 1분 남은 상황에서 심사 위원 중 한 분이 영어로 마무리 인사말을 요청했을 때는 영어 인사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마지막 인사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학교를 찾아 동학농민혁명을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을 함께 방문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전하고 미래를 밝히는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심사 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 덕분에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1기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역사 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살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발생 경위,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하루하루를 그 때로 돌아가 세세하게 알아가고 확인하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적절하고 간결한 언어로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어려운 과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로서 우리 학생과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 있는 외국인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식 신임 소장 취임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도약 다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의 신임 소장으로 김양식 전 청주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2025년 4월 1일 자로 김교수를 제2대 연구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다.

김양식 신임 소장은 단국대학교에서 한국 근대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기념콘텐츠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4월 개소한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신영우 초대 소장 재임 기간 동안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1~3호를 발간하고, 다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관련 연구의 기반을 다졌다.

김 소장은 취임 후 학술지의 KCI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전문 연구용역과 학술대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양식 소장은 “그동안 큰 성과를 일구신 신영우 소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젊은 연구자와 문화예술계로도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제23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참여자 5명·유족 316명 등록 심의·의결



지난 4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제23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신순철 위원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김춘성(천도교 선교사)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영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안미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해돈 위원 대리, 전통문화과장)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5명과 유족 316명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로써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3,913명, 등록된 유족은 13,761명에 이르게 되었다.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녹두대상 상금 1,000만 원 전액 기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발전에 써 달라” 당부



신영우 충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초대 소장)가 제18회 녹두대상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의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정기백)가 신 교수를 동학농민혁명 연구 및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공로로 녹두대상 수상자로 선정

하면서 이루어졌다. 시상은 지난 4월 24일, 고창에서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에서 진행되었다.

신 교수는 1992년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세력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충북대학교 사학과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며 평생을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에 헌신해 왔다. 특히,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산하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소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4월 25일 기념재단에서 진행된 기부 전달식에서 신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실질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전달식은 유족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

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전달식은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제23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참여자의 유족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신순철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기념재단 이사장), 정탄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신규 유족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자 및 유족 발굴과 등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5기 8차 이사회

차기 이사장 및 이사진 선임



기념재단은 지난 5월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및 감사 추천과 함께 분야별 이사진을 선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의 추천을 받아 현 신순철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총 10명의 이사를 승인하였다. 선임된 이사는 ▲유족 분야 2명, ▲기념단체 3명, ▲역사학계 2명, ▲문화예술계 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이사진의 임기는 2025년 5월 27일부터 2028년 5월 26일까지로, 총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 특별전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고,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학술지『동학농민혁명 연구』제4호 발간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대한 학술 연구 확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소장 김양식)는 2025년 5월 31일, 학술지『동학농민혁명 연구』제4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제4호에는 특집논문(2편), 일반논문(4편), 서평(1편), 연구소 소식 등이 담겼다. 특집논문은 '세계기록유산과 남원'을 주제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 ▲「김동규 기증 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이다.

또한, 일반논문으로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자운이 중구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활용 방안」이 실렸으며, 2024년 출간된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저)에 대한 서평도 포함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와 e-archive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유족과 국민이 함께 기억해야 할 동학농민혁명



2025년 4월, 2년 임기의 (사)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장으로 취임한 정탄진 회장은 동학농민 혁명 참여자 정근영(자 백현(伯賢))의 증손이다. 전북 고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30여 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장으로 퇴임하였다. 퇴임한 후로는 유족회에 헌신하였다. 2021년 유족회 이사를 맡았으며, 2023년에는 유족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며 유족회 실무에 뛰어들었다.

정탄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취임 인터뷰

날짜 2025. 5. 21.(수)

장소 서울 유족회 사무실

❶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녹두꽃』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대 유족회장 정탄진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유족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예우 문제부터 우리 유족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두꽃 독자분들께서도 항상 우리 유족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❷ 우선 유족회장이기 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으로서, 참여자인 정근영 조부님에 대해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동학농민혁명군의 비서였던 정근영 참여자의 증손입니다. 증조부님께서는 무장현 예전리 상평(현 고창군)이라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당시 과거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무장 손화중 포에서 문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학농민군의 비서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한겨레신문사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 『동학농민전쟁(발굴): 인물열전』을 연재하면서 할아버지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집안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동냥으로 조금 들었을 뿐입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근영

❸ 그간 유족회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유족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처음에는 유족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반란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동학농민전쟁(발굴): 인물열전』을 집필하기 위해 역사학자 고(故) 이이화 선생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족을 찾아냈고, 그 유족들이 열의를 가지고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994년 3월 3일, 동아클럽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총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유족회는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신 무명(無名) 참여자들의 원통함을 풀고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이루기 위해 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에 힘써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❶ 그렇군요.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족회장으로서 어떤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유족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보다는 회원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일이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 유족회만을 위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결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회원들과 잘 화합하고 밖으로는 지자체, 기념사업회, 기념재단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창립총회

동학 농민혁명 유족회 창립총회

'94. 3. 3 동아클럽



Q 회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족회 운영에서 회원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많은 분은 유족회가 겪을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만 모인다면 경제적 문제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가 형성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 유족회 활동에 대한 의지가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해서 유족회 활동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의 유족들이 유족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Q 유족회 활동을 하면서 뜻깊었던 순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2019년 5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입니다. 2019년 2월 2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첫 기념식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추모하고 그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유족, 기념사업단체, 일반시민 등 많은 분이 참여하였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지 않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여 더 많은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동학농민혁명의 대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에 요청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새 정부에 기대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1년이 되었지만 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여 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미래 세대에게 동학농민혁명이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과 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족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진취적으로 활동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무명 농민군과 후손 없이 사라진 수많은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조 고 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키하나하나
으뜸이 되라 입금이 어진고 싶하가
정과 나라를 이루어 무강의 보국을
신령총회하시어서 청강과 정직의
가족을 그 이들이 있기 때문이며
신하가 있어 아비가 일자하고
질도와 지급 우리 성상께서는
나스라게 한마련 보수의 교회와
무지의 이들이 있고
교시과 목자의 이들이
호도한 데 야



❶ 우리 기념재단에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유족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유족회와 재단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유족회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 관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재단의 하위 기관으로 치부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 설립 초창기 유족회와의 유대관계를 복원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생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념식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대면하여 서로 조율해 나가야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단에서도 기준에 하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관계 정립을 새롭게 다시 하였으면 합니다.

❷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유족회 회장으로서 국민과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동학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끝에 동학난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역사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2019),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20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동학농민혁명 등재(2024) 등의 과정을 거쳐 동학농민혁명의 큰 뜻이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과서 용어 변경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교육해야 합니다.

(대답자: 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지역 포커스

고창 동학농민혁명 청소년 문학상 무장기포상 수상작

녹두의 봄은 다시 찾아온다

영선중학교 3학년
천의현

들녘 위로 미끄러지듯 퍼져나가는 노래가 있고,
산마루에 살짝 닿는 푸른 손길이 느껴진다
청보리밭은 마지 잔잔한 파도처럼 출렁이며,
선운사의 꽃무릇은 때로 불꽃마냥 뜨겁게 타오른다네

이 땅은 늘 풍요로움을 자랑했다
햇살이 머무는 곳마다
곡식은 황금빛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부드러운 물결이 터전에 스며들어
조용히 노래를 속삭이네

그러나, 한때 고창의 바람은 울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네
익어가는 곡식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은 끝나지 않았으며,
부러진 손발로도 지켜야만 했던 터전이 있었고,
탐관오리의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하늘조차 무거운 세월을 함께 짊어졌던 때였네

그때 나타난 어느 한 사내
마치 막힌 숨을 터뜨려 내뿜는 바람처럼 다가왔네
그는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 불꽃 같은 존재였으며,
전봉준이라 불린 그 사내는,
작은 녹두꽃처럼 소박해 보였으나
그 뜻은 결국 천둥 소리처럼 온 세상을 울리고 말았다

그의 외침은 곧 강물 되어
고창에서 억눌린 무장을 흔들었고,
전주를 지나 한양까지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벼 이삭처럼 굳건히 선 이들이 물결을 이루자
그 눈동자 속엔 분명 봄의 기운이 피어올랐다네

하지만, 바람은 때로 꽃을 부리워했고,
칼날은 얼음 같은 꿈을 겨누던 때도 있었다
붉게 물든 우금티의 대지 위엔
떨어져 내리는 녹두꽃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으며,
그는 쓰러졌으나,
그의 뜻은 흙 속에서 다시 씩씩하게 자라났다네

고창은 여전히 기억하는 땅이다네
우금티의 뜨거운 바람이 남아있고,
청보리밭이 살랑일 때마다
그 옛 노래 한 조각이 잔잔히 스며든다네

고창은 늘 희망을 품은 땅이었다네
한 번 피어난 꽃은 또다시 그 자태를 되찾고,
한 번 울린 외침은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녹두꽃은 바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결국 이 땅 위에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네



충청북도 보은군

제20회 보은동학제 보은취회와 동학농민혁명



2025년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제20회 보은동학제가 열렸다. 보은문화원(원장 정 경재)이 주최하고 보은동학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효시라 자부하는 '보은취회(報恩聚會)'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날인 18일에는 132주년 보은취회 기념 행사, 동학백일장 및 동학한마당, 최태성과 함께하는 역사 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19일에는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131주기 보은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를 개최해 그날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참여자를 추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순국 제130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



지난 4월 24일, 순국 제130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면에 소재한 전봉준 단소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추모제는 천안전씨 중앙종친회 주최로 열렸으며, 전봉준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이날 추모제는 추념사, 추모사, 현화 및 분향, 오케스트라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 의장, 전덕용 천안전씨 중앙종친회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군의 넋을 기렸다.

추

순국 제130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

* 주관: (사) 전봉준장군 기념 사업회

* 후원: (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11:00

모

서울특별시

순국 제130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

130년의 울림, 전봉준 장군을 기리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로 131주년이 되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다 순국하신 전봉준 장군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도 130주년이 되었다.

2025년 4월 24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보신각 맞은편에서는 순국 제130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가 진행되었다. 이곳은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세워진 전옥서 옛터로, 1895년 4월 24일 전봉준 장군이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환 등과 함께 교수형으로 순국한 역사적 장소이다.

전봉준은 1855년 전북 고창 당촌마을에서 태어나, 고부(현 정읍)로 이사 후, 부친을 모시며 동네 학동들을 지도하는 평범한 선비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썩을 대로 썩어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는 날로 심해졌다. 전봉준 장군은 이에 맞서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고,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흩어져 있던 농민들은 하나로 결집하였고 보국안민과 척왜양강의를 외치며 무도한 일본군과 부패한 관군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에 막혀 대패한 후 1895년 음력 3월 30일, 41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제1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블로그 기자단 김수정



이번 행사는 (사)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유교신문사에서 후원하였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가 진행되었고, (사)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사무국장과 유족회장, 언론재단 이사장,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 등 내빈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또, 시조시인 고두석 님의 「전봉준 장군께 바치는 헌시」 낭독과 함께 추모 공연도 이어졌다. 살풀이 춤과 국악공연 '전봉준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특히, '전봉준 가'는 판소리고법보존회 김판순 지회장이 이번 추모제를 위해 직접 작사·작창한 작품으로,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항일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비록 추모제는 끝났지만, 종로구 서린동 전봉준 장군 동상 앞을 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최초 평등 실현의 혁명가 전봉준 장군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길 바란다.

본 글은 블로그기자단의 기사를 소식지 형식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제



지난 4월 25일, 고창군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가 열렸다. 고창군 주최,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태권유랑단 녹두'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제18회 녹두대상 시상,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무장읍성 입성 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18회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가 수상하였다. 신영우 교수는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부 할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정탄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정기백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역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고창군은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동학 진격로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고, 5월 9일 총체극 공연, 5월 12일 명사특강도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식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역사와 교육의 공간



지난 5월 14일, 고창군은 고창군청 맞은 편에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식을 진행하였다.

기존 공음면에 있던 동학농민혁명홍보관을 고창의 중심지인 전봉준 장군 동상 근처로 이전·개수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기념관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세계기록유산 무장포고문 등 의 전시와 퀴즈 및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 마련되었다.

개관식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공모전을 추진하여 청소년 문학상에 12개 작품이 수상하였다. 특히, 대상에 해당하는 '무장기포상'에 고창군 영선 중학교 3학년 천의현 학생의 「녹두의 봄은 다시 찾 아온다」가 수상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개관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원,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 제4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정읍시는 5월 10일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목표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억과 연대, 세상을 바꾼 농민들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독일 뮌헨, 일본 시마바라시, 브라질 카누두스 등 각국 농민 봉기 도시가 참여하여 농민 저항운동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전날인 5월 9일,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기념재단 관계자, 해외 연사들은 황토현전적을 방문해 헌화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지난 5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이틀간 정읍시 천변어린이 축구장 일원과 황토현전적 구민사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제 첫날인 5월 10일에는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 1894명의 진군 행렬,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 날인 5월 11일에는, 황토현전적 내 구민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순국선열을 기리는 제례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선보인 이광재 작가가 제15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하며 눈길을 끌었다.

올해 기념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현대에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1968년부터 이어져 온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올해로 제58회를 맞이하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대표적인 기념 행사로서 확고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우금티전적에서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우금티 고개에 울려 퍼진 동학농민군의 정신

충청남도 공주시

제1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블로그 기자단 김수정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전적에서 제131회 동학농민혁명 우금티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공주시와 동학농민혁명우금티기념사업회가 주관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과 유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금티'는 공주의 옛 지명으로,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최대 격전지이다.

우금티전적 알림터 인근에는 '다시 살아나는 우금티' 시비가 세워져 있었다. 시민들의 손글씨로 완성된 시비는 동학농민군의 다양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는 듯 깊은 인상을 주었다.

기념식은 우금티 위령탑 앞에서 진행되었다. 위령탑은 1973년, 우금티 전투에서 쓰러진 수많은 동학농민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본 글은 블로그기자단의 기사를 소식지 형식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 시민들로 구성된 '금강풍물패'가 선보인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묵념, 내빈 소개와 기념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철 공주 시장,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천도교 교구장, 공주농민회장, 공주문화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유족 대표의 기념사는 큰 울림을 주었다.

"1894년 10월, 저희 증조부 박용진께서는 이곳 우금티 고개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한 후, 결국 체포되어 33세의 나이에 총살당하셨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앞장섰던 선열들의 정신을 위로하고,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저는 위령탑 뒤편으로 이어진 우금티 고개를 오르며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의 희생과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외침을 오늘의 언어로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깊이 되새겼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 배의명 (사)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지난 5월 1일, (사)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백산다목적체육센터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안의 백산대회는 동학농민군이 본격적인 혁명군으로서 집결하게 된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백산성지에서 추모의 마음으로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백산대회 가두행진 재현, 기념식,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배의명 (사)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청소년, 지역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 2주년 기념 초청 강연



지난 5월 20일, 함평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초청 강연 '함평 동학농민혁명을 말하다'를 주최·주관하였다.

신영우 교수는 서론에서, 다른 지역, 특히 고창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관군·일본군의 진압 과정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함평 일대의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진압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강연에서는 함평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함평군 일대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의 대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는데 주안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함평군민 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식 A to Z



▲ 나상옥 조각가



▲ 꽈재구 시인

오늘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한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 바로 5월 27일, 장성에서 열린 제131주년 장성 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이다. 이 기념식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기념식은 김향숙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동학농민혁명 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귀빈 소개에서는 이개호 국회의원,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한종 장성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동학농민군승전기념탑을 제작한 나상옥 조각가와 '조선의 눈동자' 시판을 기증한 꽈재구 시인의 참여로 기념식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

제1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블로그 기자단 노명섭



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꽈재구 시인과 나상옥 조각가에게 감사패를 전달, 그들의 예술작품을 통해 숭고한 혁명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복래 기념사업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황룡 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3·1 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그리고 최근의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짚으며, 국회 대국민 감사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명시된 사례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곽재구 시인의 시 「조선의 눈동자」 낭송과 황룡중학교 학교 합창단의 노래 제창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의 순간을 선사했고, 5월 23일 창극으로도 공연된 바 있는 「조선의 눈동자」 소개는 예술로 승화된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승전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공동체적 가치를 성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각계 인사들이 함께 그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기를 바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그들의 염원과 함께 하길 기원한다.

본 글은 블로그기자단의 기사를 소식지 형식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 녹두꽃 다시 피다

운영시간 | 화요일~토요일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운영문의 | 063-530-9407

카페테리아1894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한 입, 여름이 달콤해진다.

커피도, 기분도, 오늘은 부드럽게.

여름 입맛 사로잡는 #돌체라떼

지금 카페테리아1894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여름신메뉴
돌체라떼



동학농민혁명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2025년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

○ 기념공원 교육·체험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체험	역사탐방	초등 4~6학년, 중·고등학생	기념공원	상시
	유적지 답사	모든 대상	정읍·부안	
	병아리 역사탐방	유아(단체)	기념관	6월~7월
	병아리 공원산책		기념공원	상시

○ 박물관 교육·체험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상설	1894! 가보세 갑오세	모든 대상	박물관 및 기념공원	상시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			5월
	'한가위 한마당' 특별 프로그램			10월
	문화가 있는 날	월별 상이	박물관 및 기념공원	3월~12월
온라인	(국내)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초등 4~6학년	온라인(ZOOM)	3월~11월
	(국외)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나는 동학농민군	재외동포		

○ 기념관 교육·체험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관내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모든 대상	기념관	2월~12월
관외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초·중·고등학생	신청학교 교실	3월~12월
답사	1894 시간여행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생	기념관, 도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5월~11월
	녹두꾸러기 탐험대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생(5학년)		4월~5월

○ 해설

구분	내용	대상	일정
기념공원	30만m ² 부지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형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 (개인, 단체)	상시
박물관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세계사적 의미를 유물, 영상, 패널 등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기획전시, 상설전시, 어린이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04.17. 병아리산책(보영유치원)



04.18. 깊은 산책(원불교 원로교무)



05.15. 녹두장군 전봉준을 만나요(북초병설, 수성병설유치원)

기념관



05.21. 1894, 시간여행



● 녹두꽃 다시 피다 47



04.25. 녹두꾸러기 팀 험대



04. 24. 찾아가는기념관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6월 동학농민군의 비밀무기, 장태



- 라탄 공예-경태 저금통 만들기
- 동학농민군의 무기와 활동총 전시

신청일: 06월 12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6월 28일(토) 오후 2시

7월 꿈 아로새기고 꼽



- 전라 수제도장 만들기
- 동학농민군의 간장과 찍은 기록물

신청일: 07월 17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8월 02일(토) 오후 2시

8월 떨랑말랑 녹두꽃 도어벨



- 양팔목 녹두꽃 도어벨 만들기
-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

신청일: 08월 14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8월 30일(토) 오후 2시

신청 바로가기



매일 신청일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문화가 있는 날

3월

혁명의 기록, 우리의 기억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

단순히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닌 직접 제작,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았다.

기록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소중함을 느꼈다.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라 매달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다.

문화가 있는 날

4월

녹두꽃 카네이션이 피었습니다



접해보지 못한 모루로 녹두꽃과 카네이션을 만들려보니 재미있었다.

해설을 접점들으면서 관찰하니 동학농민혁명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직접 쓴 편지에 대한 영상을 보아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다.

문화가 있는 날

5월

내가 그린 혁명 그림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미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풍경이 예쁘고, 바람이 솔솔 날씨까지 좋아서 행복했다.

그림으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자료를 제작해 주셔서 유익했다.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녹두꽃 한 줄 후기 EVENT!



소식지『녹두꽃』60호를 읽고 한 줄 후기를 남긴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 합니다. 소식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네이버풀을 통해 한 줄 평과 연락처를 제출하면 응모 완료!

응모기간 2025. 07. 01. (화)~
2025. 07. 25. (금)

응모방법

01 종이 소식지 촬영
또는 E-Book 캡처
종이 소식지 또는 E-Book
60호의 인상 깊은 부분을
사진이나 캡처로 남겨요.



02 신청서 작성(사진 첨부)
네이버풀에 연락처와
한 줄 평, 사진까지
첨부하면 끝!



03 10명 추첨
추첨을 통해
10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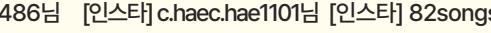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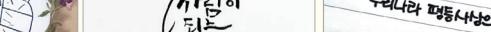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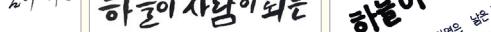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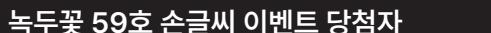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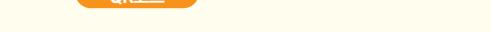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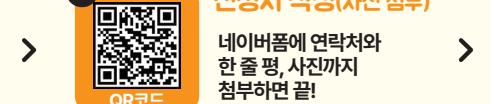
당첨자 선물

도미노피자 기프티콘 10명
(블록버스터 4 피자 M+콜라 1.25L)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 1인 1회 응모 가능합니다.
- *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 주셔야 정상적인 응모가 가능합니다.
- * 경품은 이벤트 참여 시 작성해주신 개인정보로만 발송이 가능하며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발송 후 모두 폐기됩니다.

E-Book과 네이버풀 참여 링크는 스토리 하이라이트에서 확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안내



1. 대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



2. 서류 및 제출방법

가. 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유족 신청 바로가기



3.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Memory of the World

동학농민혁명기록을 세계기록유산 등재



全 準 準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

茂長東學布告文
人若風塵世最貴者以其人偷也居臣文才人偷之大者也
仁臣直文惠于春然後乃成泰國能建神體之福今
上仁孝慈愛神明聖賢皆良正之直臣謂賢祐明則
骨立化文章之治可謂指日而待今之列臣不遑固辭
擇位授職聰明阿食指客吏陳之壬妖言正直之士
之匪徒內貪贊國才外多虐民官人之心日益惡也
入妄崇性之僉出無休姦之眾虐政反肆虐肆賴相
君臣三黨文字之倫上下之分遞壞而為亂矣信子曰「
不張國乃滅亡九命之世有甚於吾者莫自公卿以下至
者伯子令不念國家之危殆徒勞肥己潤家之計愈盛
之門視若牛貨之路應赴斯林失易之市許多貨賈不
納玉庫及充私藏國有積黒後不怨罔服驕侈相
無是忌人之路國也萬民寒暑守寧之食虐良有以也
乃立朝民窮財困也民為邦本上則則國發不令興國
民之方外設綱筭維護循序之方務窮俾復安其生
我舊德雖草野遺民食君土服君衣不可坐視國廢
危人路同心信光誠今舉義推以輔國安民為尤急
之警今日聚此光宗雖為驚服力助勤各其安奉先
祝聖化永焉幸甚
懷舊古早扶安完慶公州等地處屢次接觸而嘗
里死者二百四五十人耳是於十日蒙電報其後聽聞
尚未可知也

2025
5. 11일 ~ 8.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 전국특별자치도

